

## [예배모범] 설날 추도예배

### 하늘 시민의 소망

찬양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찬 469장) .....	다같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 495장)	
	두손들고 찬양합니다 (메들리 140장)	
기도 .....		말은이
성경봉독 .....	빌 3:20~21 .....	다같이
말씀 .....	하늘 시민의 소망 .....	말은이
나눔 .....	비전과 기도 .....	다같이
찬송 .....	매 10장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지위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땅위에 사는 성도는 아직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는 동안 질병과 고통, 슬픔과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학수고대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성도가 누릴 혜택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분은 우리의 몸을 자기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는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라고 했습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인생은 누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죽음마저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소망이자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